

시도의회, 연간회의 일수 작년보다 10~20일씩 늘려

## ‘정해년, 일하는 의회로’

정해년 새해,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연간회의 일수를 작년보다 10~20일씩 늘려 운영한다.

이는 작년까지 연간회의일수가 120일 내로 정해져 있었으나 지방의원 유급화가 도입되면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일수 제한이 없어져 시도 의회들이 관련 조례개정을 통해 회의

일수를 10~20일씩 늘렸기 때문이다.

대구시의회(의장 장경훈)는 2007년 회의 일수를 140일(총8회)로 잡았다. 이는 통상 120일을 운영해온 지금까지에 비해 20일이 늘어났으며 작년 122일보다는 18일이 증가한 것이다. 본예산과 추경 등 예산심사와 행

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정례회를 2회 54일로 잡았다. 이는 지난해 48일보다 6회가량 회의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기대되는 부분이다. 임시회는 6회에 86일간이다. 올해 첫 임시회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간 실시되며 2월과 8월은 회기가 잡히지 않아 동계·하계

휴가에 들어가는 셈이다.

경북도의회(의장 이상천)는 총130일로 작년보다 열흘 정도 회의운영일수를 늘렸다. 정례회는 2회에 54일, 임시회 6회에 76일간이다. 첫 임시회는 오는 30일부터 2월9일까지 11일간이다.

한편, 대구경북지역 기초의회들도 지금까지 80일로 묶였던 연간회의일수가 100일 내외로 풀림에 따라 집행부들의 긴장감이 예상된다.

문정화·이후혁기자  
moonjh·hugh@idaegu.com